김제시 공노조 창립 10주년 행사 '성대'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창립10주년 행사와 2016년 노동절 기념 노사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최근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건식 김제시장을 비롯한 김제시 집행부, 김제시 의회 정성주의장과 시의원단과 김제시청 공무직 3개 노동조합 위원장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시기와 노조기가 동시에 입장하고 김제시노조위원장(윤남기)의 기념사와 창립 10주년를 축하하는 축사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번에 김제시청 공무직 3개 노동조합도 참여하여 집행부, 의회, 노동조합 3대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장을 열고자 노사화합의 떡 절단식을 가졌다.

또한 제 2부에서는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김제시청 공연단, 초청가수의 공연이 실시되어 전직원이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윤남기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노동조합은 집행부와 상생하면서 주인공인 직원들 얼굴에 항상 웃음 꽃 피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는 김제시 소속 직원들이 행복하면 김제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김제시가 더욱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노사는 상생과 화합의 틀 안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직원들의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공무원 노조 행사 모습

덕진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홍보

올 8월부터 과태료 부과 앞두고

덕진구청(구청장 정태현) 가족청소년과에서는 9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차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계도 및 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행위(과태료 200만원)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과태료 10만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니 만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익산경찰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 문화탐방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익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행사를 추진하여 동포간 사랑과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탈북민 가족들의 문화행사를 갖고 자연과 함께 즐기는 섬나들이 문화를 펼쳐 외로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같이 했다.

익산서는 지난 7일 군산시 선유도에서 익산지역 탈북민 가족들과 관계자등 40여명이 참석라에 가정의 달 문화탐방 섬나들이 행사를 갖고 낯설은 환경에서 외로워하는 탈북민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훈훈한 정을 전달하여 주변의 호평을 얻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탐방 및 가족결연"행사등을 추진하여 기념품 증정과 선물등을 전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약속했다.

북한이탈주민 임모(41, 여)씨는 평소 신변보호관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으로 고마워했는데 외로운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행사를 추진하여 모처럼 자연을 즐기고 마음까지 훈훈하여 "오늘은 부러울게 없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동민 서장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은 사랑과 배려에서 시작 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안군 용담면 주민자치위, 김혜진 주무관에 감사패 수여

진안군 용담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문채)는 친절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한 일처리로 주민의 칭송이 자자한 김혜진 주무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감사패 수여는 1,000여명의 내외귀빈과 주민이 참석한 제21회 용담면민의 날 및 제11회 용강축제 한마당 행사장에서 있었으며, 이날 감사패를 받은 김혜진 주무관은 2015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용담가족테마공원, 예산, 서무체련공원 및 도로변 꽃길조성등, 환경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용담면이 진안군에서 주관한 쓰레기 3NO운동분야에서 1등의 영예를 수상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다.

문채 위원장은 "면사무소를 가면 늘 밝은 웃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성실한 일처리로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다."며 "용담면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사기를 북 돋아 주는 게 자치위원회의 일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 1970년생 모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100만원 기탁

진안군 1970년생 모임(회장 추태엽)은 최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항로)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1970년생 모임 추태엽 회장과 회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잃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적은 금액이더라도 좋은 곳에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항로 이사장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한 곳에 사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원컨벤션, 어버이날 맞아 300여명 어르신 초청 점심 대접

한원컨벤션(궁전웨딩홀)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나운3동과 소룡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300명을 초청해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이날 한원컨벤션은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점심과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 큰 호응을 얻었다.

한원컨벤션은 지난해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이날 나운3동과 소룡동 부녀회원 및 직원 3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나눔행사에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김금옥 대표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뜻 깊은 날이었다"며, "작은 힘이나마 어르신들께 항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정읍경찰서, 불우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사랑 실천 나서

정읍경찰서는 불우환경에 처해 실어증을 알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웃음을 잃은 청소년에 대해 주거 환경 개선으로 웃음을 찾아주는 등 큰 감동을 주어 화제다

K학생은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가출로 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보호 아래 자랐으나 조부모마저 연이어 돌아가시고 작은집에서 지내야 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작은집이 너무나 협소하여 6명이 지내기에는 너무나 작았다 그래서 원래 살던 조부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이 낡고 오랫동안 집을 비워놓아 비가 새고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자라 들어가 살기에는 적합지 않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지역사회 및 협력단체인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 보호위원회,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주거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200만원 자재비 마련하고 봉사단체와 여성청소년계 직원이 협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하게 수리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숙모 A씨는 경찰서에서 적극 협력하여 집수리를 해 주어 자신의 아이 2명과 큰집아이 2명을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어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다며 밝게 웃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익산경찰서, 어버이날 맞아 고령 탈북민 위문 '훈훈'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송백마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2명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효의 정성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 지원의 일환으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신규병)와 함께 배모 할머니(78세), 최모 할아버지(80세) 등 고령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 및 위문금을 전달하였으며 실향의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최모 할머니는 병동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데 이렇게 방문하여 카네이션과 위문금을 전달해줘 너무 감사한다면서 "낯선 대한민국에 홀로와 고향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위로해주고 건강도 살펴줘 큰 힘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결 혼

▲**김진봉**(김복연씨·정상순 여사 차남)군·**박율미**(전북매일신문 박형권씨·이수애 여사 차녀)양= 일 시 : 14일(토) 오후 1시, 장 소 : N타워컨벤션 웨딩홀 베일리홀

본사 내방

▲김택곤 전주방송 사장
▲성지호 전주방송 방송본부장 상무이사

진안 마이파출소, 현장학습 차량 운전자 음주 감지 실시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소장 김병률)는 진안 북부마이산 주차장에서 부여양화초등학교 학생들과 현장학습 온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음주감지를 실시했다.

이날 마이파출소 직원들은 현장학습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 등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학습이 되도록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차량 내 안전벨트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한편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병률 소장은 "5월은 현장학습이 많은 달이므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힘써 현장학습차량 음주감지 및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산경찰서, 어린이집 유아 초대 승마체험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집 유아를 호성동 기마경찰대에 초청해 승마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날 승마체험에는 사랑우아 어린이집 유아 25명과 교사 3명이 참석해 승마체험과 함께 말 먹이주기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승마체험에 참가한 사랑우아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이 실제로 말을 타고 먹이도 주는 등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준 경찰관에게 감사드린다"며"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찰관 아저씨들이 무섭지 않고, 말도 잘 타는 멋진 경찰관으로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진수기자

정읍 정우면, 어르신 경로 효 대잔치 성료

정우면에서는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최근 정우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독거노인 등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효 대잔치를 열었다.

이번 효 대잔치는 정우면 부녀회 주관으로 정읍시문화제 등 정읍시 축제기간 먹거리부스 운영과, 부녀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관내 헌옷 모으기 운동 수익금 등 천만원을 틈틈이 모아 마련하였다.

이날 효 잔치는 지역 노인 500여명을 초청하여 시립국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정우합창단, 정우두드림, 초청가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푸짐한 먹거리를 준비하여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에게 즐겁고 웃음 넘치는 시간을 갖게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중앙지사 010-903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010-96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효자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